



사단법인 한국기상학회보

大 氣

1991년 6월

창간호 (1권 1호)

창간사

한영호 (회장)

한국기상학회가 사단 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함을 기점으로 하여 보다 원활한 회원간의 정보 교환과 학회 간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학회회보 “大氣”를 창간하게 된 것을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돌이켜보고 그후의 주변 상황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금은 기상인들의 단결된 의지가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서 중앙기상대가 다소 미흡한 감은 있지만 기상청으로 개편되어 과학기술처의 외청으로서의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기상인들이 보다 더 합심하여 기상청의 기구나 기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겠습니다. 또 최근 과학기술처에서 본 학회에 의뢰한 “대기과학 연구소”설립에 관한 기본 계획이 마련된 이 시점에서 대기과학 연구소가 조속히 설립되어 후진 학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이 때에 학회 회보 “大氣”의 창간을 하게된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大氣”의 역할은 점점 증가하는 기상 정보에 대한 전달과 우리 학회의 의사 전달 매체로써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大氣”가 여러분의 연구와 업무 활동을 하시는데 필요 불가결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학회 회보를 발간함에 있어 노력하여 주신 평의원, 이사회, 편집위원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축 사

김성삼(3대 한국기상학회장)

한국기상학회가 창립된지 어언간 30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창립 초기에는 예산 부족에다 또 논문 부족으로 학회지를 1년에 한번 펴내기도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학회 기반이 공고하게 되어서 사단 법인체로 등록하였고 학회지도 계간(季刊)으로 발행하게 되었으니 실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애로를 극복하고 계속 학회지 발간에 진력한 역대 편집간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법인체로 재 출발함에 따라 학회에서는 앞으로 가일층의 도약을 위하여 여러가지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학회 회보 "대기"를 창간하여 학회지와 병행으로 간행케 되었고 우선은 연2회 발간하지만 멀지않아 이것도 계간으로 하겠다고 하니 학회의 발전상(發展相)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 보입니다. 이 어찌 경하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상학도들의 활기찬 노력의 결정(結晶)이라 생각하여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회보 "대기"의 내용은 편집 위원들의 편찬 계획에 따라 마련될 것이지만 우선은 국내외의 기상학계 동향 등을 소개하는 정도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를 거듭할수록 빠른 템포로 충실해져서 미국기상학회의 "Bulletin", 영국기상학회의 "Weather", 그리고 일본기상학회의 "Tenki" 등과 같은 대열에 서게 되어서 멀지않아 국내외의 기상학자들은 물론이고 대기과학에 관심 있는 일반 교양인들의 주목도 받게 될 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대기"의 탄생(誕生)을 축하하며 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원 동정

- 이광목 : 1991. 1. 22 - 27 일본 나고야에서 일본 기상청 주최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아태 지역 세미나에서 "한국의 기후변화 조사"를 발표.
- 조하만 : 1991. 2. 2 - 16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후 협약 제정 협상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가.
- 최 효 : 1991. 4. 21 - 27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열린 제6차 동해, 동지나해 연구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동지나해의 해양경계층에서 지형 소용돌이의 시간 변화"에 대하여 발표. 참가국수는 7개국이며 총 발표 논문수는 93편이었음.
- 조희구 : 1991. 5. 31. 연세대학교에서 제 1회 대기 오존 심포지움을 개최. 이 심포지움은 조희구 교수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한국대기오존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 항공우주연구소, 연세대학교, 한국표준 연구소들이 주관, 후원하여 권인혁 외무부 환경 대사의 격려사와 일본의 와타나베 박사, 인도의 잘푸리 박사를 비롯하여 6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됨.

축 사

박 용 대 (기상청장)

한국기상학회는 학회가 창립된지 어언 28년이 지난후인 1990년 8월에 비로소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간 한국기상학회는 기상학의 발전과 그 응용 및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과학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하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 학회가 법인화 됨에 따라 학회의 목적은 더욱 중요하고 그 사명도 커졌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상학회지를 통하여 학회 소식 등이 전달되었으나 이제 한국기상학회보 “대기”로 보강 창간되었음은 학회 발족 30년 가까이나 되어 성년이 된 지금 조금 늦은감은 있으나 350여 회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으며 회보가 보다 많은 소식과 정보가 회원 상호간에 전달됨으로써 우리 회원은 물론 각 분야에서 각광을 받게 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상청은 1948년 정부수립 이듬해에 국립중앙관상대로 직제가 정해지고 1990년 청으로 확대 개편 되기까지 한국기상학회와 더불어 기상 업무와 과학 발전에 공헌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인력 양성에도 적극 기여하여, 전국 6개 대학교에서 기상관련 학과가 개설돼 기상 전문 인력을 배출, 앞으로 우리 기상 분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더욱 넓혀나가 지금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기후 환경 변화의 심각성에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지구 환경 변화의 심각성도 이 회보를 통하여 심도있게 다루어 지고 널리 홍보되어 국민의 이해와 협조의 폭을 넓혀나가야

겠으며, 가능하다면 세계기상기구와 세계환경계획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 프로그램을 입수하여 지구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적 노력에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와관련 지난 4월 기상청이 주최하였던 “고도 산업 사회에서의 기상정보 활용도 제고”에 관한 간담회에서 토론되었던 제 문제를 다시한번 상기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상 정보의 효율적 보급 방안 중 우리 생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가치있는 정보는 우리 스스로 아이디어를 개발, 활발하게 교환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농업기상에 대한 활발한 지원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요소가 되어, UR협상에서 우리 농업이 버티어 나갈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항공기 안전 운항과 해상 활동에 대한 기상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향후 기상관측과 예보의 전달 체계, 각종 장비증설 등 정보의 질적 향상에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서 대두된다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자연재해 경감 국제 10년 (IDNDR)” 사업이 이미 1990년 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방재 기상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각종 기상특보를 용이하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 우리 기상인이 하여야 될 일입니다. 신속한 정보의 교환은 앞서 언급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 “대기”는 반드시 이러한 점을 충족시켜 줄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기상학회보의 창간을 축하하며 기상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회 무

1) 1991년도 제 1차 연구개발위원회

일 시 : 1991년 1월 5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

안 건 : 기상청 기상연구소에서 위탁한
"대기과학연구소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건

2) 1991년도 제 1차 포상위원회

일 시 : 1991년 1월 5일(토) 오후 2시

장 소 :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

안 건 :

- ① 대한민국 과학기술상(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 해당자 없음
- ②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한국과학기술단체 총 연합회 주관): 기상청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학회에서도 추천
- ③ 1990년도 우수 논문 추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 박 순 응 (1990) : 한반도에서 3차원 해륙풍 수치모델의 결과 - 한국기상학회지 제 26권 제 2호 78-103

3) 1991년도 제 1차 학술위원회

일 시 : 1991년 3월 23일(토) 오후 3시

장 소 : 연세대학교 천문대기과학과

안 건 :

- ① 1991년도 봄 학술발표회 회의
- ② 7월 workshop(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주관)
- ③ 가을 국제학술회의(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원)은 위원장에게 일임
- ④ 기 타

4) 1991년도 제 1차 이사회

일 시 : 1991년 4월 13일(토) 오후 2시

장 소 :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

안 건 :

① 신입회원 인준 :

정회원 - 김정남, 민동하, 박수남, 박영산

특별회원 - 서울특별시립 종로도서관

② 로고 심사

③ 기 타

5) 1991년도 편집위원회

일 시 : 1991년 4월 25일(목) 오후 6시

장 소 : 연세대학교 천문대기과학과

안 건 :

① 한국기상학회 회보(Bulletin)발간

② 기 타

6) 1991년도 봄 학술발표회

일 시 : 1991년 4월 26일-27일

장 소 :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알렌관

참석인원 : 약 140명

주 제 : 대기환경과 기후 변동

7) 1991년도 제 2차 학술위원회

일 시 : 1991년 6월 22일(토) 오후 2시

장 소 :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

안 건 :

① 1991년도 가을 학술발표회

② 과총 workshop

③ David Houghton교수 기상학회
세미나 개최

위원회 활동

기상학용어심의위원회

- 용어심의회의 :
 - 약 주 1회
 - 금년 전반기 (1월-6월)동안 영중일기상학용어집 p243-p300 내용을 심의
 - 1991. 1.17 - 19 2박 3일간 대전 유성에서 집중적으로 용어 심의

학술위원회

- David Houghton 교수(미국 위스컨신 대학교 기상학과) 초청 특별 강의
 - 일 시 : 1991. 6. 25 15:00 - 17:30
 - 장 소 : 서울대학교 자연대 교수회의실
 - 제 목 : Recent Advances in Mesoscale Meteorology
- David Houghton 교수와의 간담회
 - 일 시 : 1991. 6. 25 11:00 - 12:00
 - 장 소 :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
 - 참석대상 : 한국기상학회 이사
 - 주 제 : AMS의 Education과 Man Power에 대한 활동

편집위원회

- 한국기상학회지 발간 현황
 - 1991년 1호에 연구논문 4편 인쇄 중
 - 1991년 2호에 실을 연구논문 3편 교정중
- 편집위원회 회의
 - 일시 : 1991년 4월 25일(목) 오후 6시
 - 장소 : 연세대학교 천문대기과학과
 - 토의내용 : 학회 소식(Bulletin) 발간을 결정하고 표제는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하도록 의뢰하며 내용 및 발간은 편집위원회가 담당하기로 함

연구개발위원회

- 구성 및 회의

- 한국기상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인가된 후 위원 14명으로 구성 됨
- 1990년 5월 12일 1차회의에서 위원회 중· 단기 사업을 토의
- 사 업
 - 기상청 산하 기상연구소의 정부 출현 연구기관화를 위한 "대기과학연구소 설립 방안"을 작성
 - 각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일기도 실습 교재" 제작 중

1991년도 봄 학술 발표회

* 초청강연

- How to make miniature models of geophysical fluids in a laboratory, Ryuji Kimura (동경대학교)
- The NMC's quasi-Lagrangian model for hurricane forecast, Mukut B. Mathur(미국기상청, NMC)
- Global warming : Fact or fiction ?, Michael E. Schlesinger (University of Illinois)
- 대기의 예측성, 김정우(연세대)

* 학술발표회

- A study on the existence of the dry period before the changma and its associated atmospheric circulation, 변희룡(서울대)
- Two dimensional hydrodynamic model of the ionosphere of Venus, 김 준(한국항공우주연구소)
- 남극 세종 기지의 기상 및 Bizzard 특성 분석, 남재철(기상청), 이방용(해양연구소)

- El-Nino와 anti El-Nino의 겨울철 평균과 일시파의 차이에 관한 연구, 안순일(서울대), 강인식(서울대)
- 이산화연방법에 의한 온산지역 SO₂ 농도 분포와 장기노출 간이샘플러 개발에 의한 SO₂ 농도 측정에 관하여, 이동인(부산수산대)
- A study on the local weather and air pollutant transport, 원경미, 황수진(부산대)
- 해륙풍의 실내 실험과 선형이론에 의한 상사법칙의 검토, 이화운(부산대)
- 1987년 7월 22일 한반도에서 발생한 중간-β규모의 집중 호우에 대한 수치 실험, 이동규, 홍성유(서울대)
- 제한지역 중규모 수치모델에서 초기화 과정의 실험, 홍성유, 이동규(서울대)
- Local energetics in the evolution of barotropic vortex, 권혁조(강릉대)
- 준라그란지안 모델을 이용한 태풍 예보: II. Bogussing과 격자거리에 따른 결과, 김용준, 윤순창(서울대), 김정우, 이승만(연세대)
- 물방울 크기분포가 강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김영철, 이승만(연세대), 진기범(기상청)
- 동계 기압계 유형별 남한의 강설량 분포 및 예천지방 60mm 이상 대설 발생시 기압계 유형, 신광식, 변희룡(공군)
- HIRS관측에 의한 대기의 upward와 downward 장파복사량 추정에 관한연구, 오성남(한국과학기술연구원)
- Cloud cover analysis from the GMS/VISOR imagery using bispectral threshold technique, 서명석, 박경윤(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기상 위성 자료를 이용한 지표의 성질과 열수지 성분 도출, 이태영, 조희구, 이규태(연세대)
- 단일 도플러레이다 자료를 이용한 수평 바람장과 발산장 추정, 오미립, 전종갑(서울대)
- On the reliability of the monthly rainfall amounts of Seoul based on historical observation by the "Korean rain-gauge", 임규호, 정현숙(서울대)
- Heat and moisture budgets of the heavy rainfall case occurred over Korea during 1-3 september 1984, 최종민, 이동규(서울대)
- 겨울철 발해만 기압골에 의한 Pattern별 폭설연구, 이준석, 변희룡(공군)
- 1990년 1월 29일 - 2월 1일 한반도에서 발생한 대설에 관한 사례 연구, 서은경, 전종갑(서울대)
- 이동성고기압에서의 봄철 오산지방의 강풍 특성에 대하여, 곽병철, 변희룡(공군)
- 한국의 여름강수 지역구분, 문영수(경산대)

용어 해설

저주파 변동(低周派 變動,
Low frequency variability)

정 창 희 (서울대 명예교수)

매일 매일의 일기를 지배하는 저기압은 1주간 정도의 시간 규모로 발생, 발달, 이동 소멸하여 대기 순환의 변동을 초래한다. 이와는 달리 저기압의 수명인 1주간 보다 길고 수년에 이르는 시간 규모의 대기 변동을 저주파 대기 변동(Low frequency atmospheric variability) 또는 간단하게 말하여 저주파 변동 이라고 한다. 한편 저기압과 같이 그 수명이 1주간 보다 짧은 시간 규모의 변동을 초래하는 일시 요란을 고주파 일시 요란(High frequency transients) 이라고 한다. 열대기상학 분야에서는 저주파 변동이라는 말 대신 계절내 변동(季節內 變動)이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저주파 변동의 공간 규모는 반구 이상의 크기를 갖는다.

저주파 변동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1) 주로 열대 대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30-60일 주기 진동.
- 2) 동진하는 순환계를 정체하게 하는 저지 현상(Blocking).
- 3)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점간의 물리량이 연관하여 변동하는 원격 결합(遠隔 結合, Teleconnection, 원격연관, 원격 전파, 원격 영향이라는 말도 사용되고있다).
- 4) 중위도 편서풍의 세기를 나타내는 지수 변동 주기 현상(소위 Index cycle

이라한다).

- 5) 몬순(Monsoon)의 활동기와 휴식기를 수반하는 주기적 변화.

최근 위와 같은 저주파 변동을 초래하는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까닭은 주간 예보, 월간 예보와 같은 장기 예보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들 현상의 실태 파악과 그 이론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주기 변동을 초래하는 현상의 물리적 기구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여러 가지로 시도 되고 있다. 그 시도는 크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 하나는 저지 현상이나 원격 결합 따위의 현상이 대기 자체의 유체 역학적 성질로 설명될수 있다는 생각이며 다른 하나는 해수면 온도의 변화와 설빙 면적의 변화 따위의 대기 빙계 조건이 변화하여 그 영향이 대기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참고:

Wallace T.M. and M.L. Blackmon, 1983: Observation of low frequency atmospheric variability. Large Scale Dynamical Processes in the Atmosphere, Hoskins and Pearce, Eds., Academic Press, 55-94.

우리나라의 기상학용어 심의와 그 제정

김성삼

(기상학용어 심의위원회 위원장)

I 이미 발행된 용어집에 관하여

6·25 동란이 끝난후, 그동안 우리나라 각 부문에서 제멋대로 통용되고 있는 과학·기술 용어를 정비하고 통일하기 위하여 문교부에서 과학 기술 용어 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어집 발간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의 제8집으로 1960년에 “천문학·기상학 용어집”을 발간 하였다. 총 228면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책의 절반도 되지 않는 95면만이 기상학편에 할당되어 있고 이것을 다시 우리말순·구미어순·일어순으로 3분하고 있으므로 수록된 용어가 약 890개 밖에 되지 않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지만 전쟁후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편집 위원은 5명인데 그중 천문학 분야가 2명이고 기상학분야는 서상문·김진면·조영근(작고)의 3명으로 되어 있다. 여하간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학 용어집이다.

그 다음으로 1961년에 공군 본부에서 발행한 “항공용어집”중에 “항공기상·항공관제” 편이 있다. 총 307면 중 169면이 항공기상편으로 할당되어 있다. 항공에 치중하여 기상용어를 잘 정리하였고 45면에 이르는 그림·도표·사진 등을 배치하여 책을 이용하기에 편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풍력계급에 따른 바람 이름이나 구름 분류에 따른 구름 이름 등등에 고유한 우리말을 찾아 내기도 하고 새로운 용어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제정 위원으로 공군 이외에 중앙관상대·서울대학교·항공대학·교통부 항공과 등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한글학회의 한

글 학자를 감수위원으로 하고 있음을 보아도 좋은 용어집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 후 문교부에서 보다 더 충실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용어집”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1970년에 “기상학편”이 나왔다.

천문학 용어와 기상학 용어를 한권에 묶어서 “천문학·기상학편”으로 발간하려던 문교부의 당초 계획을 바꾸게 하여 “천문학편”과 “기상학편”을 각각 별개의 단행본으로 발행하게 함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에는 당국의 관련 인사들이 천문학과 기상학이 각각 독립된 학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좀처럼 이해 하려고도 하지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담당관의 말은 “육법전서에도 천문 기상을 하나로 묶어서 분류하고 있다.” 하며 완강하게 거부하기만 하였었다. 지금으로 부터 불과 20여년 전의 일이지만 관계관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도 고루(固陋)하였던 것이다. 그때 그일의 실무를 맡았던 필자는 문교부의 담당관을 여러번 만났고 어렵게 설득하여 결국 “기상학편”이 별개의 단행본으로 나오게 되었다. 기상학 용어집의 면목이 일신되었으므로 뜻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총 219면으로 ABC 순과 가나다순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약 3,300개의 용어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10명으로 제한된 심사 위원들이 모두 시간에 쫓겨서 충분한 검토를 할 겨를이 없었으므로 적지않게 불비한 점을 남기게 되었다.

1976년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과학기술용어집”을 발간하였고 이듬 해에 수정 증보 판을 내놓았다. 총 1,363면인 큰 책으로 각 분야의 용어를 두루 수록해 놓았는데 기상학 용어도 그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앞의 용어집 “기상학편”(1970)의 용어들을 수정 증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I 현재 진행중인 용어심의에 관하여

한국기상학회에서는 1985년 2월에 “기상 용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과거에 제정하였지만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 또는 유통이 되지 않는 것 등이 있고 새로 제정해야 할 용어도 많으므로 전반적인 재 검토를 하여 보다 충실하고 새로운 “기상학 용어집”을 만들어 널리 보급 시킬 목적에서이다.

처음에는 심의위원 7-10인으로 하여 “세칙”과 “기상용어 심의 기준”등을 만들고 “과학기술용어집”(1977)속의 기상학 용어를 추려내어서 축조 심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심의 회의를 7차까지 진행되었지만 때마침 문교부에서 중고등 학교 교과서 개편을 하게 되어 상당수의 심의 위원들이 교과서 집필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다. 따라서 용어심의는 더 진전되지 않고 오랫동안 정돈 상태에 빠져 버렸다. 학회에서는 1988년 5월에 “기상학 용어 심의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심의 사업을 다시 촉진시키기로 하였다. 각 전공 별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심의 위원의 수도 몇차례 증원하여 1991년 6월 현재 32명으로 되어 있다.

심의는 가능하면 매주 1회씩 개최하고 매번 4시간 내외의 회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계획대로 진전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1991년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대전(유성)으로 가서 합숙하면서 “기상학 용어 집중 심의 회의”라는 특별 기획을 실천하였다. 서울 이외에 강릉, 대전, 공주, 대구, 부산 등으로부터 위원들이 참가하여 참석 위원은 15명에 이르렀고 열성적인 용어 심의를 하여 좋은 성과를 올렸다. 그때 점심 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 일행은 대덕 연구 단지

에 있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와 시스템공학 연구소를 참관하였다. 태양에너지 활용관계, 슈퍼컴퓨터(Cray-2S)관계의 설명등은 특히 인상적이었고 그밖에도 여러가지 많이 참고 되었다. 우리를 환대해준 오정무 소장, 성기수 소장, 그리고 관련 연구원 제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6월 21일 현재 제 80차 심의회의를 끝냈었고 진도는 기본 자료 기준으로 약 90% 진척되어 있다.

기본 자료로는 “영증일 기상학 용어집”(1988, 일본 농림통계협회, 489페이지, 주:원판은 1974년 북경 발행의 “영한 기상학 용어집”임)을 택하여 축조 심의를 하되 뺄것은 빼고 추가할 것은 추가 해 가며 진행하고 있다. 미국기상학회의 “Glossary of Meteorology”를 충실히 대조 검토하고, 또 일본의 “기상의 사전”(신판), “기후학·기상학 사전”등등 여러가지 관련 자료를 참조해 나가고 있다.

분담하여 심의 위원별로 심의해 와서 종합 검토하여 집대성 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과거의 용어집이 모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시간과 노력의 절약은 되었으며 개인의 편견이 들어 가기도 하고 통일성, 연관성 등이 결여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되도록 많은 위원이 한 자리에 앉아서 용어 하나 하나를 축조 심의해 나가도록 한 것이다. 때로는 감론을박으로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보류하고 다른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타분야에 조회한다든지 하여 다음에 재론기로 하고 있다. 일단 결정된 것도 “일사부재리”의 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다른 용어가 관련되어 다시 검토해야 할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일에 더 좋은 안이 나오면 재론하여 수정 한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 만큼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용어 심의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임을 통감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새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만으로 독단적 결정을 할 수도 없다. 후일 남북이 통일되면 남북에서 달리 쓰고 있는 기상학 용어의 통일 문제도 대두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에 임하고 있다.

(부 기)

기상학회 회원 여러분!

현재 쓰고 있는 기상학용어 중에 부적당하거나 새로운 용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 분은 자기 의견을 별표와 같은 형식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심의 회의에 상정하여 좋은 의견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용어 심의 위원이 아닐지라도 우리나라 기상학 발전과 후학들을 위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협조와 조언 있기를 기대합니다.

(별 표)

기상학 용어	출처(구체적으로)
영:	
중:	
일:	
한:(안)	

제안자 성명 :

소속 :

주소 :

보낼 곳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대기과
학과 내 한국기상학회

한국기상학회 마크에 관하여

전 종 갑(총무이사)

한국기상학회가 1963년 1월 창립된 이래 임의단체로서 많은 학술활동을 해 오다가 보다 나은 학술활동과 연구사업 및 수익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0년 9월 12일 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사단법인으로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학회를 상징하는 마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1990년 10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이사회 때 학회 마크를 공모하기로 결정하고 당선작에 대하여 1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회 의결 사항은 1990년 11월 1일자 본학회 공문을 통하여 전회원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원래 학회 마크 모집 마감일은 1990년 12월 15일이었으나 그 때까지 두 사람의 작품 밖에 들어오지 않아 2개월간 연기한 결과 네 사람으로부터 총 7개의 작품이 응모되었습니다. 1991년 4월 13일 본학회 이사회 때 이들 7개의 작품을 심사하였고 그 중 두 작품을 각각으로 선정하였으며 두 가작에 대하여 수정 도안을 다시 받아 다음 이사회에서 재심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이사회에서 수정된 두 작품을 놓고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 당선작을 내지 못한 가운데 이 승만 이사께서 두 작품을 결합한 듯한 새 도안을 제안한 상태로 일단 유보되었습니다. 이에 회장단에서는 이승만 이사께서 한 제안을 토대로 하나의 수정 도안을 만들어 모든 이사들께 우편으로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 도안가의 견해를 듣고 회장단이 최종으로 결정한 현재의 마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심사 숙고 끝에 태어난 학회 마크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깥의 큰 두 원은 온 우주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 사이에 학회 명칭의 국문과 영문이 표기되어 있고 창립연도가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원 안의 그림을 보면 날씨 변화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구름이 가운데 위치해 있고, 그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우리 나라를 상징하는 태극 모양을 닮고 있습니다. 구름으로 일부 가리워진 태양은 기상을 좌우하는 일차적인 에너지원으로서 그 중요성을 표현하였고, 구름 밑의 사선은 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상부의 3개 곡선은 등압선 또는 장파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부의 3개 곡선은 바다의 물결 또는 단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결 위의 거꾸로 선 세모는 소낙성 강수를 표현하기도 하면서 기상관측을 하는 배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원내의 최하단에 있는 기호는 난역에서의 남서풍을 표시하고 있으며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원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 학회의 마크는 비록 어느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아끼는 가운데 학회의 발전과 함께 사랑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大氣”의 창간

이 동 규(편집이사)

한국기상학회의 편집 일을 6년째 맡아오면서 한국기상학회지에 연구 논문과 학회 소식을 함께 실어야 하는 것을 늘 불만스럽게 여겨왔다. 학회 소식 및 기상 관련 소식, 논문등의 내용은 연구 논문과는 분리되어 미국 기상학회의 “Bulletin of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와 같은 회보로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 논문을 다루는 학회지의 일도 힘겨운데 또 다른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기에는 아직도 학회의 인력 및 재정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아는 터이기도 하였다. 또 임원 회의, 평의원 회의, 학회와 관련된 모임에서 회보의 필요성을 제시하면 모두 그것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과 내용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나 정작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하여서는 비용이나 인력의 한계가 내세워지곤 하였다.

나의 생각에는 한국기상학회지의 발간에 필요되는 노력 이상으로 회보의 발간도 또 다른 “편집 위원회”가 구성되어 전담하여야 제대로 될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회보의 발간을 위하여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 논문과는 다른 해설, 논문, 서평등의 원고를 청탁 하여야하고 과학 기술 분야의 소식, 국제적 기상활동 동향, 신간 서적, 학술 회의 내용등을 취재하는 일을 별릴만한 학회의 규모도 아니어서 지난 학회장 누구도 이러한 계획을 구상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단지 1990년 평의원 회의에서 편집위원회의 활동으로서 회보 발간의 계획을 제시하였을 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시도하여 볼 만 하다는 긍정적인 결론이 나왔을

뿐이다.

한국기상학회가 사단 법인으로 등록하여 학회의 일이 확대되고 활발하여지는 한편 학회의 전임 사무원도 있게되자 회보의 발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전종갑 총무이사와의 의논하여 한국기상학회의 학회 소식을 떼어내어 “학회소식(News letter)”든, “학회보(Bulletin)”이든 시작하면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실행론을 택하였다. 그 후 편집위원회에서 회보 또는 소식을 발간할 것을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동의하여 1991년도 총회에서 이 계획을 전 회원에게 알리게 된 것이다.

간단히 연구 논문과 분리되는 학회 소식이라면 예산이나 편집에 어려움이 크게 따를 것은 없겠으나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좀더 구색을 갖춘 회보를 내기 위하여 “이름”을 붙이고 내용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처음 생각한 년 4회 발간보다는 년 2회발간으로 하였다.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부탁한 좋은 이름의 추천에는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이사회와 용어 심의 위원회에 의뢰한 결과, 이사회에서는 “날씨”, “대기”, “날씨회보”, “대기회보”를 선정하여 용어 심의 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고 용어 심의 위원회에서 열띤 토론과 해석을 붙여 “大氣”가 이름 지워진 것이다.

회보의 발간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학회의 사무원이 타이핑하고, IBM 개인 컴퓨터에서 편집하여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하면 편집비와 인쇄비를 합친 정도면 될 것으로 계산한 때문이다. 원고의 청탁과 정리, 소식 및 활동의 취재는 형편이 닿는 대로 차츰 늘려가기로 하고 무엇보다도 발간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회보의 발간은 학회의 마크 선정과도 크게 관계가 있다. 심사중에 있는 학회 마크를 속히 결론지어 회보의 창간호부터 마크를 달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총무 이사가 이사회, 도안 전문가, 학회회원 사이를 동분서주하여 마크 선정의 끝을 맞게하여 이 회보는 얼굴과 이름을 함께 가지고 창간되어 여간 경하할 일이 아닌가 싶다.

지금 이 “大氣”는 한국기상학회지에 실렸던 학회 소식의 내용을 크게 벗어났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한국기상학회지로 부터 독립하여 회보로서 별도로 발간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기상 관련 논문 및 소식, 과학 기술 소식, 서평, 일기 및 기후 개황, 제언, 학술 학회의 내용 보고, 안내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한국기상학회의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 회보가 나가기까지 회보 발간을 결정하여준 편집위원회, 이사회, 평의원회, 학회 마크에 정성을 쏟아준 총무 이사, 타이핑을 하여준 학회 사무원, 편집을 도와준 서울 대학교 대기과학과 대학원생 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

정 관

社團 韓 國 氣 象 學 會 定 款 法 人

1990. 3. 23 制 定
1990. 8. 28 許 可
1990. 9. 12 登 記

第 1 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學會는 公益法人의 設立運
營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따라 氣象學
의 發展과 그 應用 및 普及에 寄與하
고 나아가 科學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名稱) 이學會는 社團法人 韓國氣象
學會(以下 法人이라고 한다)라 稱하
고 英文 名稱은 The Korean Meteor-
ological Society 로 한다.

第3條 (事務所의 所在地)

- ① 法人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 ② 法人은 支部를 둘 수 있다.

第4條 (事業) 法人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
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遂行 한
다.

1. 學會誌와 學術 刊行物의 發刊 및 配布
2. 學術 會合의 開催
3. 學術 資料의 調査, 蒐集 및 交換
4. 學術의 交流
5. 氣象學의 發展을 위한 支援 및 建議
6. 其他 法人의 目的 達成에 必要한 研究
開發 및 收益事業

第 2 章 會 員

第5條 (會員의 種類와 資格) 法人의 會員은
다음과 같다.

1. 正會員은 氣象學에 관한 學識과 經驗
이 있으며 正會員 2人의 推 薦을 받아
本人의 入會願書에 의하여 理事會가
承認한 者로 한다.
2. 準會員은 氣象學 및 그 關聯 分野를
專攻하는 學生이나 또는 이 分野에 關
心을 가지고 있는 者로서 正會員 1人
以上の 推 薦을 받아 本人의 入會願書
에 의하여 理事會가 承認한 者로 한
다.
3. 特別會員은 法人의 目的에 贊同하며
會長의 提請에 의하여 理事會가 承認
한 自然人 또는 團體로 한다.
4. 名譽會員은 正會員으로 氣象學에 관한
學識과 德望이 높으며 會長의 提請에
의하여 評議員會가 推戴한 人士로 한
다.
5. 終身會員은 正會員으로 5年以上 經過
하고 所定의 會費를 納付한 다음 理事
會가 承認한 會員으로 한다.

第6條 (會員의 權利와 義務) 法人의 會員은
다음 各號의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

1. 正會員은 議決權, 選舉權, 被選舉權을
갖는다.
2. 會員은 法人이 開催하는 學術發表會,
講演會 등 學術會合에 參與할 수 있으
며 學會誌에 投稿할 수 있다.
3. 會員은 學會誌를 無料로 配付 받을 수
있으며 一般 出版物의 購入에 대하여
便宜를 받을 수 있다.
4. 會員은 法人에 대하여 希望事項을 提
出하고 그 審議를 받을 수 있다.
5. 會員은 定款 및 諸 議決事項을 遵守하
고 會費를 納付하여야 하나 단 名譽會
員은 會費를 免除 받을 수 있다.

第7條 (會員의 脫退 및 資格停止)

1. 會員이 脫退하려 할 때는 脫退願을 理
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2. 會員이 學會의 名譽를 훼손하거나 會費를 完納하지 않을 때 理事會는 會員의 資格停止를 議決할 수 있다. 단, 名譽會員은 評議員會에서 議決한다.

第 3 章 任 員

第8條 (任員의 種類와 定數) 法人의 任員은 다음과 같다.

1. 會長 1人
2. 副會長 3人
3. 理事 10人 以上 20人 以內 (會長 1人, 副會長 3人 包含)
4. 監事 2人
5. 名譽會長 약간名

第9條 (任員의 任期) 各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會長만은 重任할 수 없다.

第10條 (任員의 選任) 任員은 다음과 같이 選任한다.

1. 任員은 正會員 중에서 評議員會에서 選出한다.
2. 任員 缺位시는 補選하되 그 任期는 前任者 殘餘期間으로 한다.
3. 名譽會長은 前任會長을 歷任한 分으로 65歲 以上인 자로 한다.

第11條 (任員의 職務) 任員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法人을 代表하고 會務를 統括하고 處理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의 有故時는 年長 順으로 會長을 代理한다.
3.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고 會務를 處理한다.
4. 監事는 法人의 運營을 監査한다.
5. 名譽會長은 學會 運營 全般에 관한 諮問을 한다.

第 4 章 總 會

第12條 (總會의 構成 및 機能) 總會는 會員으로 構成하고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評議員의 選出
2. 豫算과 決算의 承認
3. 定款 改定
4. 資産 管理의 承認

第13條 (總會의 召集)

-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 ② 定期總會는 每年 봄에 會長이 召集한다.
- ③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評議員會가 決議할 때, 또는 正會員의 5分の 1以上이 目的과 案件을 提示하고 要求할 때 會長이 召集한다.
- ④ 會長은 會議開催 10日前까지 會議의 目的과 案件을 全 會員에게 通知 하여야 한다.

第14條 (總會 議決定足數)

1. 總會는 正會員 5分の 1以上の 出席으로 成立한다.
2. 總會의 議決은 法人解散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出席 正會員의 過半數로 定하고 可否同數일 때는 會長이 決定한다.

第 5 章 評 議 員 會

第15條 (評議員의 選任과 定數) 評議員은 總會에서 正會員 중에서 選任되며 50人 以內로 한다.

第16條 (評議員會의 機能) 評議員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任員의 選出

2. 臨時總會 召集에 關한 事項
3. 名譽會員의 承認
4. 施行細則의 承認
5. 委員會의 承認과 委員長과 委員의 選任
6. 支部의 承認
7. 기타 總會에서 委任 받은 事項

第17條 (評議員會 召集)

- ①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評議員 3分の 1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또는 第24條 4號에 의하여 監事가 要求할 때 會長은 評議員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② 會長은 會議開催 7日前에 評議員에게 그 目的과 案件을 通知하여야 한다.

第18條 (評議員會 議決定足數)

- ① 評議員會는 評議員 4分の 1以上の 出席으로 成立한다.
- ② 評議員의 議決은 出席 評議員의 過半數로 定하고 可否同數일 때는 會長이 決定한다.

第 6 章 理 事 會

第19條 (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의 事項을 審議 또는 議決한다.

1. 業務의 計劃에 關한 事項
2. 業務의 執行에 關한 事項
3. 豫算과 決算에 關한 事項
4. 總會와 評議員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5. 委員會 設立 解體에 關한 審議
6. 支部 設置에 關한 審議
7. 定款을 除外한 諸規定의 制定 및 改廢에 關한 事項
8. 其他 法人 業務 執行에 關한 事項

第20條 (理事會 召集)

- ① 會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

이 된다.

- ② 理事會를 召集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前에 目的과 案件을 各 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21條 (議決 定足數)

- ①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한다.
- ② 理事會는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 ③ 理事會는 第20條의 通知된 案件에 限하여서만 議決할 수 있다. 다만, 在籍理事 全員과 監事가 出席하였을 때는 通知하지 아니한 事項이라도 이를 附議하고 議決할 수 있다.

第22條 (理事會 召集의 特例) 在籍理事 過半數가 會議目的을 提示하여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할 때에는 會長은 召集要求日로부터 20日 以內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23條 (書面 議決 禁止) 理事會는 書面 議決을 할 수 없다.

第 7 章 監 事

第24條 (監事의 職務) 監事는 다음 職務를 行한다.

1. 法人의 財産 狀況을 監査한다.
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을 監査한다.
3. 監査結果를 總會에 報告한다.
4. 第3號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必要할 때에는 評議員會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第25條 (監事의 意見陳述) 法人의 財産 狀況, 또는 理事會의 運營과 業務에 關한 事項에 대하여 會長, 評議員會 및 總會에서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第 8 章 財 産 및 會 計

第26條 (財政) 法人的 財政은 다음 收益金으로 充當한다.

1. 會員의 會費
2. 資産의 果實
3. 事業收益金
4. 寄附金 및 其他 收益金

第27條 (資産)

- ① 法人의 資産은 基本資産과 普通資産으로 區分한다.
- ② 基本資産은 理事會에서 指定 또는 編入키로 한 器物과 基金을 말한다.
- ③ 基本資産은 處分될 수 없다. 단, 理事會의 議決과 總會의 承認으로 그 一部를 普通資産으로 轉用할 수 있다.
- ④ 普通資産은 基本資産 外의 것을 말한다.
- ⑤ 法人의 經費는 普通資産에서 支拂한다.
- ⑥ 普通資産에 剩餘가 생겼을 때는 理事會의 議決과 總會의 承認으로 基本 資産으로 編入할 수 있다.

第28條 (會計年度) 法人의 會計年度는 政府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29條 (歲入, 歲出, 豫算) 法人의 歲入, 歲出, 豫算은 每 會計年度 開始 1個月 前까지 事業計劃書와 함께 理事會의 議決과 總會의 承認을 얻어 主務官廳에 提出한다.

第30條 (豫算 外의 債務負擔등) 豫算外의 債務의 負擔이나 債權의 拋棄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31條 (解散) 法人을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在籍 正會員 4分の 3以上의 贊同으로 議決하여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32條 (解散 法人의 財産 歸屬) 法人이 解散할 때의 殘餘 財産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 國家 또는 地方自治 團體에 寄附한다.

第33條 (定款 改正) 法人의 定款을 改正하고자 할 때에는 在籍理事 3分の 2以上의 贊成과 總會의 議決을 거쳐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34條 (常勤職員의 定數와 報酬) 會長은 必要에 따라 常勤職員을 둘 수 있으며 常勤職員의 數와 報酬는 理事會의 議決에 의한다.

第35條 (施行細則) 이 定款의 施行에 必要한 細部的인 事項은 理事會에서 定하여 評議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36條 (公告事項 및 方法) 法令의 規定에 의한 事項과 다음 各號의 事項은 이를 서울에서 發刊되는 新聞에 公告함을 原則으로 한다.

1. 法人의 名稱 및 事務所의 所在地 變更
2. 法人의 解散

第 37條 (設立 當初의 任員 및 任期) 이 法人설립 當初의 任員 및 任期는 다음과 같다.

第 9 章 補 則

職 位	性 名	注 所	任 期
會 長	한영호	부산 해운대구 우2동 삼호가든 3-1303	설립일-1992.4
副會長	박순웅 손창수 최희승	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아파트 8동 409호 경기 안양시 석수2동 럭키아파트 8동 1306호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5-129	설립일-1992.4 설립일-1992.4 설립일-1992.4
理 事	강인식 김정우 노재식 문승의 민경덕 성낙도 이광호 이동규 이승만 이태영 전종갑 정을영 조봉구 조희구 최 효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420-201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연희 한양아파트 5-804 서울 성동구 능동 89-2 부산 동래구 명장동 24-1 대구 수성구 만촌동 960-67 서울 성동구 옥수동 466 한남하이츠빌라 1동 104호 서울 종로구 혜화동 22-37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신대방 우성아파트 16-901 서울 은평구 역촌동 26-5 서울 은평구 녹번동 100-55 현대아파트 603호 서울 관악구 봉천7동 244-2 교수아파트 나동 404호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412-205 서울 관악구 신림동 519-5 서울 은평구 갈현동 483-1 서울 구로구 시흥1동 한양아파트 11동 703호	설립일-1992.4 설립일-1992.4 설립일-1992.4 설립일-1992.4 설립일-1992.4 설립일-1992.4 설립일-1992.4 설립일-1992.4 설립일-1992.4 설립일-1992.4 설립일-1992.4 설립일-1992.4 설립일-1992.4 설립일-1992.4 설립일-1992.4
監 事	김제성 허병수	제주 제주시 도평동 934-3호 7/5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483-22	설립일-1992.4 설립일-1992.4

附 則

1. (施行日) 이 定款은 主務部處長官의 承認을 얻어 登記한 날로부터 그 效力을 發生한다.
2. (韓國氣象學會 承繼) 法人은 社團法人 登錄以前의 韓國氣象學會의 設立 事項을 承繼한다.

운 영 세 칙

제 1 장 회 비

-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정관 제26조와 제35조에 따라 회무집행에 필요한 회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회원 회비) 정회원의 입회금은 5,000원, 회비는 년 10,000원으로 한다.
- 제 3 조 (평의원 회비) 평의원의 회비는 정회원 회비 년 10,000원과 평의원 회비 년 20,000원으로 한다.
- 제 4 조 (준회원 회비) 준회원의 입회금은 2,500원 회비는 년 5,000원으로 한다.
- 제 5 조 (특별회원 회비) 특별회원의 회비는 년 100,000원 이상으로 한다.
- 제 6 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모든 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 제 7 조 (종신회원 회비) 종신회원은 정회원회비 10년분 이상을 납부한 회원이 된다.
- 제 8 조 (외국회원의 회비) 외국에 거주하는 정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US \$ 10.00, 년회비 US \$20.00로 한다.
- 제 9 조 (회비납부 기한) 회원은 당해년 회비를 회계년도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0년 9월 15일부터 유효하다.

제 2 장 포상위원회

-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정관 제35조에 따라 학회상 수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구성)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7-10인으로 구성되며 학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 제 3 조 (종류) 학회상은 학술상과 공로상으로 한다.
- 제 4 조 (수상자격)
1. 학술상 : 한국기상학회지에 최근 5년간 게재된 학술논문의 저자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로상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중에서 선정한다.
- 제 5 조 (수상자 선정)
1. 이 위원회에서 수상 사유서를 작성하여 당해년도 정기총회 1개월전까지 평의원회에 제출한다.
 2. 평의원회는 무기명 투표를 하여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 제 6 조 (시기) 학회상은 정기총회에서 학회장이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7 조 (내용) 학회상은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 제 8 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 제 9 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결은 정관의 의결 기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0년 9월 15일부터 유효하다.

제 3 장 편집위원회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정관 제4조와 제 35조에 따라 학회간행물의 편집과 출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6-10인으로 구성되며 편집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제 3 조 (직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한국기상학회지의 발간
- 2. 평의회로부터 위임받은 기타 간행물의 발간

제 4 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5 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결은 정관의 의결 기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0년 9 월 15 일 부터 유효하다.

제 4 장 학술위원회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정관 제4조와 제 35조에 따라 학술의 교류와 진흥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이 위원회는 위원 10-15인으로 구성되며 학술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원을 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직무)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수행한다.

- 1. 기상 학술 정보의 교류
 - 2. 기상 학술 발표회 및 워크샵 관장
 - 3. 기상 학술 발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
- 제 4 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 제 5 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결은 정관의 의결 기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0년 9 월 15 일 부터 유효하다.

제 5 장 기상학용어 심의위원회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정관 제4조와 제 35조에 따라 기상학 용어를 심의 보급시키기 위한 기상학 용어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이 위원회는 위원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장은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3 조 (직무)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1. 과학기술용어집의 해당 용어의 검토
- 2. 새로운 용어의 제정
- 3. 관련 타분야의 공통용어 조정
- 4. 기타 기상학 용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제 4 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5 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결은 정관의 의결 기준에 따른다.

부 칙

평의원, 임원 및 위원회 명단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0년 9월 15일 부터 유효하다.

평의원(1990-1992)

제 6 장 연구개발 위원회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정관 제4조와 제 35조에 따라 기상학 지식의 보급과 응용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간사를 둘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위원을 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직무) 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수행한다.

1.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2. 기상학 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
3. 기상 지식의 사회 보급
4. 기상 정보와 기상 기술의 사회적 활용
5. 기타 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5 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결은 정관의 의결 기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0년 9월 15일부터 유효하다.

강시환(해양연구소), 강인식(서울대), 곽종흠(공주대), 김광식(전 기상대), 김문일(기상청), 김보희(항공대), 김성삼(전서울대), 김정우(연세대), 노재식(원자력연구소), 문승의(부산대), 문영수(경산대), 민경덕(경북대), 민병언(해양대), 박경운(과학기술연구원), 박순웅(서울대), 박용대(기상청), 변희룡(공군기상대), 봉종현(기상청), 서상문(전기상대), 성락도(데이터통신), 성학중(기상청), 서정은(세종무역), 손창수(공군기상대), 손형진(전기상대), 심현진(기상청), 심경섭(기상청), 양인기(전기상대), 유찬수(조선대), 윤순창(서울대), 윤용황(기상청), 윤학수(기상청), 이광호(전북대), 이동규(서울대), 이승만(연세대), 이종범(강원대), 이천우(기상청), 이태영(연세대), 조봉구(공군대), 전중갑(서울대), 정영근(전남대), 정용승(교원대), 정을영(기상청), 정창희(전서울대), 조희구(연세대), 최정부(기상청), 최 효(강릉대), 최희승(기상청), 한영호(부산수산대), 홍성길(기상청)

임원 (1990-1992)

회 장 한영호(부산수산대)
 부 회 장 박순웅(서울대)
 이 사 강인식(서울대), 김정우(연세대), 노재식(원자력연구소), 문승의(부산대), 민경덕(경북대), 박순웅(서울대), 성락도(데이터통신), 손창수(공군기상대), 이광호(전북대), 이동규(서울대), 이승만(연

세대), 이태영(연세대), 전종갑(서울대), 정을영(기상청), 조봉구(공군대), 조희구(연세대), 최 효(강릉대), 최희승(기상청), 한영호(부산수산대)

감 사 김제성(전공군기상대), 허병수(전공군기상대)

실행이사 총무 전종갑, 편집 이동규, 재정 강인식, 섭외 이태영, 학술 이광호

포상위원회 위원(1990-1992)

위원장 한영호
위 원 김광식(전기상대), 김성삼(전서울대), 김정우(연세대), 노재식(원자력연구소), 서상문(전기상대), 성락도(데이터통신), 손형진(전기상대), 이승만(연세대), 정창희(전서울대), 조희구(연세대)

기상학용어심의위원회 위원(1990-1992)

위원장 김성삼(전 서울대)
위 원 강인식(서울대), 광종흠(공주대), 김광식(전기상대), 김문일(기상청), 김보희(항공대), 김정우(연세대), 노재식(원자력연구소), 문승의(부산대), 민경덕(경북대), 박경윤(과학기술연구원), 박순웅(서울대), 박용대(기상청), 변희룡(공군기상대), 봉종현(기상청), 성락도(데이터통신), 심경섭(기상청), 윤순창(서울대), 이광호(전북대), 이동규(서울대), 이승만(연세대), 이종범(강원대), 이태영(연세대), 전종갑(서울대), 정용승(교원대), 정을영(기상청), 정창희(전서울대), 조봉구(공군대), 조희구(연세대), 최 효(강릉대), 최희승(기상청), 한영호(부산수산대), 홍성길(기상청)

편집위원회 위원(1990-1992)

위원장 이동규(서울대)
위 원 김경익(경북대), 김정우(연세대), 박경윤(과학기술연구원), 봉종현(기상청), 윤순창(서울대), 이광호(전북대), 이종범(강원대), 이태영(연세대), 홍성길(기상청)

학술위원회 위원(1990-1992)

위원장 이광호(전북대)
위 원 강인식(서울대), 김정우(연세대), 민경덕(경북대), 박순웅(서울대), 이동규(서울대), 이승만(연세대), 이태영(연세대), 전종갑(서울대), 조희구(연세대), 최 효(강릉대), 한영호(부산수산대)

연구개발위원회 위원(1990-1992)

위원장 박순웅(서울대)
위 원 강인식(서울대), 김광식(전 기상대), 김성삼(전서울대), 노재식(원자력연구소), 문승의(부산대), 박용대(기상청), 성락도(데이터통신), 이광호(전북대), 이태영(연세대), 전종갑(서울대), 정창희(전서울대), 조봉구(공군대), 조희구(연세대)

새로나온 책

- Brown, Robert., 1991: Fluid Mechanics of the Atmosphere. Academic Press.
- Wood, Eric., 1991: Land Surface-Atmosphere Interactions for Climate Modeling. Kluwer Academic Publisher.
- Phillander, George., 1990: El Nino, La Nina and the Southern Oscillation. Academic Press.
- Linzen, Richard., 1990: Dynamics in the Atmospheric Physics. Cambridge Univ. Press.
- Kundu, Pijush., 1990: Fluid Mechanics. Academic Press.
- Monin, A. S., 1990: Theoretical Geophysical Fluid Dynamic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Schlesinger, M. C., 1990: Climate-Ocean Interac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Restelli, G., 1990: Physico-Chemical Behaviour of Atmospheric Pollutant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Alcamo, Joseph., 1990: The RAINS Model of Acidifica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White, J. C., Global Climate Change Linkages : Acid rain, Air Quality, and Stratospheric Ozone. Elsevier.
- Knap, Anthony., 1990: The Long-Range Atmospheric Transport of Natural and Contaminant Substance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Firor, J., 1990: The Changing Atmosphere : A Global Challenge. Yale Univ. Press.
- Isidorov, Valerii., 1990: Organic Chemistry of the Earth's Atmosphere. Springer-Verlag.
- Lesieur, Marcel., 1990: Turbulence in Flui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Lyons, T. J., 1990: Principles of Air Pollution Meteorology. CRC Press.
- Kelley, Michael., 1989: The Earth's Ionosphere : Plasmaphysics and Electrodynamics. Academic Press
- Munn, R. E., 1989: Boundary Layer Studies and Application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Warrick, B., 1989: The Greenhouse Effect, Climate Change and Eco-system. John Wiley & Sons.
- Sherwood, B., 1989: Carbon Dioxide and Global Change. Institute for Biospheric Research Inc.
- Charnock, H., 1989: The Dynamics of the Coupled Atmosphere and Ocean. The Royal Society.
- Roan, S. L., 1989: Ozone Crisis : The 15 year Evolution of a Sudden Global Emergency. John Wiley & Sons.
- Cotton, W. R., 1989: Storm and Cloud Dynamics. Academic Press.
- Singer, S. F., 1989: Global Climate Change : Human and Natural Influences. Paragon House Publishers.
- Jorgensen, S. E., 1989: Principles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2nd ed. Elsevier.

- Botkin, Daniel., 1989: Changing the Global Environment: Perspectives on Human Involvement. Academic Press.
- Arya, Pal., 1989: Introduction to Micrometeorology. Academic Press.
- Fantechi, R., 1989: Carbon Dioxide and Other Greenhouse Gases: Climatic and Associated Impacts. Kluwer Academic Publishers.

안 내

한국기상학회

○ 91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학술회의 하계 심포지움

- 일 시 : 1991.7.5 (금) 10:00
- 장 소 : 잠실 롯데월드 3층 국제회의실 (루비)
- 참석인원 : 90여명
- 주 제 : 중규모 대류계의 역학
- 내 용 : 좌장 한영호(한국기상학회장)
이인영(Argonne National Lab., U. S. A.)

10:00 - 12:30

- Parameterizations of Microphysical Processes for Simulation of meso-scale and Large-Scale Clouds
이인영(Argonne National Lab., U.S.A.)

휴 식

- 강수 발달에서 물방울 크기 분포와 주위 바람의 역할
이 승 만(연세대학교)

12:30 - 13:30 중 식

13:30 - 17:00

- 건조공기의 유입이 강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김 경 익(경북대학교)
- 종관기상 관측으로 본 우리나라 구름 형태의 계절변화
김 명 수(대전지방기상대)

휴 식

- On the Atmospheric Aerosol in Relation to the Wind Systems

이 동 인(부산수산대학교)

- 한반도에 접근하는 태풍의 진로 예보 모델에 관한 연구

윤 순 창(서울대학교)

- 이 심포지움은 고 이내영 교수 추모 학술회의로 함

- 여기서 발표된 논문은 고 이내영 교수 추모집(한국기상학회지 27권 3호)으로 발간 예정

○ 한국기상학회 가을 학술발표회

- 일 시 : 1991. 10. 25(금) - 26(토)
- 장 소 : 강릉대학교

기상연구소

○ '90년도 연구사업 결과 발표회

기상연구소는 '90년 각 연구실에서 수행한 기본연구사업 "악기상 특성사례 연구(I)" 등 7과제의 연구결과 발표회를 기상청 및 연구소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90. 2. 3(수) 기상청 강당에서 실시 하였다.

○ 기상연구소 청사이전

기상연구소는 그동안 기상청과 함께 서울 종로구 송월동 1번지에 청사를 마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무실의 협소등 시설이 부족하여 서울과학관내의 4,5층 일부를 임차 4.22 - 26일(1주일) 동안 이사를 하였다. 업무의 특수 및 시설 이

전의 여건이 안되는 위성기상부와 레이
다연구실은 기상청내의 사무실을 종전대
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전 부서는 소장
실, 서무과, 예보연구실, 미기상연구실,
기상계측 연구실이며 26일에는 청장 이
하 간부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헌판
식을 가졌다.

이전 부서의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다.

부 서 명	전화 번호
소 장 실	766-0321
서무 과장실	765-7013
서 무 과	765-7014
	765-7015
예보 연구실	765-7016
미기상 연구실	765-7017
기상 계측 연구실	765-7018
FAX	765-7019

大 氣

제 1권 1호

1991년 6월 30일 인쇄
1991년 6월 30일 발행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기상학회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 대학교 대기과학과 내
전화 (02)882-1541

발행인 한 영 호
편집인 이 동 규
인 쇄 서울대학교 출판부